

“강의 삽니다” 흔들리는 수강신청 제도

“후하게 쳐 드립니다.” “00강의 있으신 분 제발 저한테 팔아주세요.” 오늘도 에브리타임(익명 대학 온라인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간절한 판매요청 글이 올라온다. 수강신청 기간만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우리 대학의 암담한 현실이다. 이러한 강의 거래는 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까. 그 본질은 무엇일까. 기자는 의문을 품었다.

송유나 기자 202290015@m365.ksnu.ac.kr

강의 거래의 실체

대학에는 흔히 ‘꿀강의’이라 불리는 과목이 존재한다. 좋은 시간대의 흥미로운 수업은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강의는 한정되어 있기에 학생들은 웃돈을 주고서라도 원하는 과목을 듣고자 한다. 또한 4학년 학생들은 졸업을 하기 위해 남은 학점을 채워야 한다. 하지만 강의 신청에 실패해 학점을 채우지 못할 경우 불가피하게 초과 학기를 다녀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우리 학생들은 원하는 강의를 듣기 위해, 또는 졸업 학점을 채우기 위해서 강의를 암암리에 거래하고 있다.

강의 거래는 보통 에브리타임(익명 대학 커뮤니티)을 통해 진행된다. 익명이 보장되며 우리 대학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에브리타임은 강의를 거래하기 적합한 플랫폼 품이다. 수강신청을 통해 강의 신청에 성공한 학생은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판매 글을 게시한다. 또는 강의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이 게시판에 구매 글을 게시한다. 해당 과목을 사거나 팔 의향이 있는 학생은 게시자에게 쪽지를 보낸다. 구매자와 판매자는 강의를 두고 가격 협상을 한다. 흡사 경매가 연상되는 현상이다. 가격이 확정되면 금액을 송금하고 강의를 건네줄 시간을 협의한다. 시간을 맞추지 않으면 중간에 제3자가 강의를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접속하지 않는 특정 시간에 판매자가 강의를 취소한 직후 구매자가 강의를 신청하면 강의 거래는 완료된다. 현재 몇만 원에서 십만 원이 넘는 금액에도 강의가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들이 에브리타임에서 강의를 거래하고 있는 모습이다.

출처: 한국체대 에브리타임

목적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그렇다면 이러한 강의 거래는 과연 통용되는 행위일까.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우리 대학에서 ‘범의 이해’ 수업을 강의하고 있는 임이사 교수(이하 임 교수)에게 자문했다. 임 교수는 ‘강의 거래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강의 거래를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학칙 등에 별다른 금지규정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하지만 매매를 목적으로 수강신청을 하는 행위는 학교의 수강신청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다. 매매 목적의 수강 신청이 성행할 경우, 인기 강의는 더 쉽게 매진되고 수강신청 변경의 건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진다. 결국, 학교 입장에서는 공정한 수강신청 업무 진행에 지장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며 목적에 따라 범죄가 될 수도 있음을 밝혔다.



‘범의이해’를 강의하고 있는 임이사 교수는 변호사이기도 하다.

강의 거래는 지성인의 자세를 저버리는 것

매매의 목적을 가지고 수강신청을 하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강의 거래가 어떻게 평가될까. 우리 대학에서 ‘체육 철학’ 수업을 강의하고 있는 김흥식 교수(이하 김 교수)에게 자문했다. 김 교수는 “수강신청은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이 필요 학점을 이수해야 할 때 꼭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수강신청은 학생의 권리이자 책임이므로 모든 학생에게 수강신청의 기회가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강의 매매는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수강신청이 이루어지게 하고 더욱이 특정 학생들이 학사 운영체제를 이용하여 금전과 편익을 취하는 것이다. 이는 동등한 기회의 보장이라는 불문의 원칙, 관습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더욱이 대학생이 대학의 규정과 보편적 윤리에 벗어나는 강의 거래를 행하는 것은 지성인을 지향하는 본연의 자세를 저버리는 것이다. 특히 수강신청 변경을 악용하여 금전을 포함한 어떤 이득을 얻고자 하는 시도는 참으로 암울한 대학생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또한 “어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의 거래는 통용되는 행위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공정거래를 초석으로 하는 것이지 약육강식의 원리에 맹종하는 것은 아니다. 돈이 많은 학생이 마음대로 수강신청을 하게 된다면 수강신청의 질서, 더 나아가 대학 교육의 질서는 혼란스러워질 것이다.”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체육철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흥식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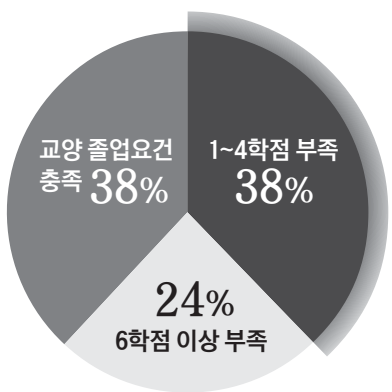
정의란 무엇인가

책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저자인 마이크 센텔은 시장이 도덕을 밀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즉 돈이 관련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타주의, 관용, 결속 등의 시민 정신이 퇴색된다. 우리 대학의 사례도 마찬가지이다. 강의 거래의 개념이 없었던 시절에는 본인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과목이 생기면 필요한 주변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취소를 해 모두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금은 강의 과목이 사고팔 수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되며 수강신청의 공정한 기회 제공이라는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 학교란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지를 배우는 공간이다. 배움으로 가는 과정인 수강신청이 이렇게 금전적 이익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것은 돈 앞에서 모든 가치가 퇴색되는 자본주의 폐해의 한 모습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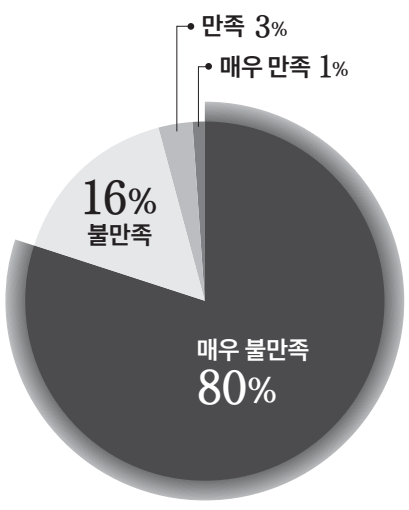
강의 거래의 본질

이러한 강의 거래를 오롯이 학생들의 문제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수업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은 강의 선택권이 매우 좁다.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강의실과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수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좁은 강의 선택권에 대한 불만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수강신청 제도가 변경되어 고학년들의 수강신청이 매우 힘들어진 상황이다. (한국체육대학보 262호 5면 참고) 당장 졸업을 급한 학생들에게 강의 구입은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올 수 있다. 초과 학기를 다니며 등록금을 더 낼 바에는 차라리 십만 원 외의 강의를 사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2022년 1학기 4학년 대상 교양 졸업학점 부족 조사



2022년 1학기 변경된 수강신청 시스템에 대한 의견



기존 수강신청 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다.

출처: 총학생회 인스타그램

더욱 공정한 수강신청을 위해선

하지만 위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국립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걷는 등록금으로는 현재의 강의 수가 최선이라는 게 대학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강의 거래의 해결 방안은 정말 없는 것일까. 고려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아주대학교 등 많은 대학교에서 강의 매매를 방지하고자 ‘취소-시간차 수강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는 수강취소가 가능한 시간대와 새롭게 수강신청이 가능한 시간대를 분리하여 강의 거래를 위한 시간 조정을 방지한다. 이는 강의 거래 방지의 측면과 아울러 언제 생길지도 모를 여석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취소-시간차 수강신청 제도

취소 시간대별 여석 생성 시각

일자	수강취소 시간	여석 생성 시간
8.30(월) ~ 9.2(목)	9시~12시	12시~12시30분
	여석 생성 시각 이후~17시	(익일)9시
9.3(금)	9시~12시	1차: 12시~12시30분
	1차 여석 생성 이후~15시	2차: 15시~15시30분
	2차 여석 생성 이후~17시	※2차 여석 생성 이후 취소 건수는 여석 제공 없음

가톨릭대학교 ‘취소-시간차 수강신청 제도’의 여석 생성 시각이다.

출처: 가톨릭대학보 21년 10월 5일자 기사

기자 생각

당장의 원하는 과목을 얻기 위해 강의를 돈 주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 수도 있다. 당장 한 번은 강의를 돈 주고 사는 게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강의 구입 역시 공정하지 못한 수강신청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행위이다. 이는 결국 수강신청을 통해 원하는 과목을 신청하는 것을 점점 어렵게 만든다. 다른 사람의 기회뿐만 아니라 미래 본인의 기회까지도 빼앗는 셈이다. ‘갈택이어’라는 말이 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다가올 앞날을 생각하지 않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이제는 공정한 대학 문화, 나아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집중해야 할 때이다.

